

두달 앞둔 10월 재·보선 최대 11곳... 정치지형 변화 주목

서청원·임태희 출마설... 손학규·정동영 불출마 가닥

〈새누리당〉

〈민주당〉

안철수 독자세력화 첫 시험대... 여소아대 관심

10·30 재·보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거물급 인사의 출마설이 자전타전으로 거론되는 등 정치권의 물결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이번 재·보선을 계기로 본격적인 세력화를 꾀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 측과 민주당과의 한 판 대결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야권의 세력 재편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나아가 선거결과에 따라 지금의 여대야소(與大野小)가 무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당내 역학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29일 현재까지 경북 포항 남·울릉, 경기 화성 갑 두 곳이 재·보선 지역으로 확정된 가운데 인천 서구·강화읍, 인천 계양읍, 경기 수원읍, 경기 평택읍, 충남 서산·태안, 전북 전주 완산을,

나주·화순, 경북 구미갑, 서울 서대문을 등이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나와 재·보선 대상지역으로 거론된다.

◇안철수 세력화 교두보 마련하나=독자세력화를 추진 중인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이번 선거에 야권연대 없이 임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따라서 이번 재·보선의 승패가 향후 정치일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둬야 야권 내 주도권을 확보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독자세력화 작업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재영입에 속도를 내는 안 의원은 추석을 전후로 재·보선 출마 후보군이나 영입 외부인사 그룹을 가시적으로 드러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

졌다. 이미 경북 포항 남·울릉, 경북 구미갑 등 일부 지역의 후보 영입은 거의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현재 후보들을 '연대'나 '결사체' 형태로 느슨하게 묶어 재·보선에 내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거물급의 귀환? =야권에서는 핵심 진박(진박근혜) 인물이자 한나라당 시절 대표를 지낸 서청원 새누리당 상임고문이 출마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 태생인 서 상임고문은 충남 서산·태안이나 인천 지역 출마가 관측되고 있다. 서 상임고문이 컴백하면 차기 당권 주자로 주목되는 김부성 의원의 경쟁 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과 안상수 전 인천시장 등도 각각 경기, 인천 지역에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당대표와 경기지사를 지낸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과 대선후보를 지낸 정동영 고문의 출마설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1년 4월 야권에게는 무덤으로 일컬어졌던 분당을 재·보선에 출마해 승리한 적이 있는 손 고문은 이번에도 구원투수 역할론이 대두하고 있으나 정작 본인은 불출마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가 고향인 정 고문 역시 전북 완산읍에 차출설이 제기되고 있으나 본인은 현재까지 출마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소야대' 도래하나=현재 국회 의석수를 보면 새누리당 153석, 민주당 127석, 통합진보당 6석, 정의당 5석, 무소속 7석 등이다.

따라서 새누리당이 이번 재·보선에서 3석을 잃으면 과반이 무너진다. 현재 재·보선 대상으로 거론되는 지역 가운데 6곳 정도가 새누리당 지역으로, 여소야대 정국 도래시 야권이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야권은 정국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견기업은 경제 허리... 성장사다리 구축 경제 활성화에 맞게 경제 민주화도 가야”

차대통령, 중견기업 대표 오찬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중견기업은 우리 경제의 허리다. 사람도 허리가 튼튼해야 건강할 수 있듯이 중견기업이 튼튼해야 나라 경제도 튼튼해질 수 있다”면서 “중견기업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각종 정책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찬은 전날 국내 10대 그룹 총수들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한데 이어 올해 하반기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 현장의 기업인을 독려하는 두 번째 자리다. 박 대통령은 오찬에서 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순간 77개에 달하는 정부의 지원이 없어지게 되는데 20개의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게 된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안주하려는 ‘피터팬 증후군’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중견기

업, 대기업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연구·개발(R&D), 세제 등 꼭 필요한 지원은 계속해서 기업에 부담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중산층 복원을 위한 정책과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에는 민간자문위원과 정부위원, 경제단체 및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 구현이 고용률 70% 달성의 핵심이고, 고용률 70% 달성이 중산층 70% 복원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라며 “이런 점에서 창조경제 구현과 중산층 복원은 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는 “하반기 우리 경제 정책에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이상 가는 목표가 없다”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맞게 맞춤형 고용복지도 가야 되고 경제민주화도 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檢 상고 포기... 박주선 의원직 유지

80만원 벌금형 확정

박주선 무소속(광주 동구) 의원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박 의원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광주지검은 29일 “수사 검사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상고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종 결정은 광주 고검에서 내리지만, 지검의 의견을 무시하고 상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지역 10년 이상이 선고된 형사사건이 아닌 경우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고 이번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도 한 차례 거친 바 있어 검찰의 상고 포기는 예견됐었다.

이에 따라 ‘3번 구속, 3번 무죄’의 이력을 지닌

박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4번째 구속됐지만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박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둔 2월 동당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고 당시 민주당 경선에 대비해 사조작을 동원,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박 의원은 항소심에서 동당 모임 관련 불법 선거운동단 인정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났지만 대법원은 “일부 판단을 누락했다”며 이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광주고법은 지난 22일 파기환송심에서 박 의원에 대해 다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해남서 골프 치다 철수하는 MB

이명박 전 대통령이 휴양차 해남 파인비치 골프장을 찾아 2박 3일 측근들과 라운딩을 했다. 라운딩에는 허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귀남 전 법무부장관 등이 함께 했다. 이 골프장 게스트 하우스에 머물며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골프를 치고 진도 운림산방 등 인근 관광지도 둘러보며 망중한을 즐겼다. 이 전 대통령 일행이 29일 지인들과 골프를 치다가 취재진이 도착하자 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휴양차 해남 파인비치 골프장을 찾아 2박 3일 측근들과 라운딩을 했다. 라운딩에는 허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귀남 전 법무부장관 등이 함께 했다. 이 골프장 게스트 하우스에 머물며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골프를 치고 진도 운림산방 등 인근 관광지도 둘러보며 망중한을 즐겼다. 이 전 대통령 일행이 29일 지인들과 골프를 치다가 취재진이 도착하자 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靑, 정무·문화체육 비서관 전격 교체

청와대가 김선동 정무비서관과 서미경 문화체육비서관을 전격 교체하기로 하는 등 지난 5일 비서실 개편 후 비서관급 이하 후속인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두 비서관의 교체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 배경에 대해서는 “분위기가 쇠진 차원”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질설”을 부인했다.

김 비서관은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청와대 내 대표적인 친박(박근혜)계 인사로 지난 6월초 이정현 당시 정무수석의 흉보수석으로 수평 이동 후 2개월간 정무수석 없는 정무수석실을 잘 지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이달 초순 정치와 무관한 직업 외교관 출신의 박준우 정무수석이 임명되면서 김 비서관의 비중이 더 커질 것이란 관측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갑작스런 교체는 의외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청와대가 김선동 정무비서관과 서미경 문화체육비서관을 전격 교체하기로 하는 등 지난 5일 비서실 개편 후 비서관급 이하 후속인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두 비서관의 교체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 배경에 대해서는 “분위기가 쇠진 차원”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질설”을 부인했다.

김 비서관은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청와대 내 대표적인 친박(박근혜)계 인사로 지난 6월초 이정현 당시 정무수석의 흉보수석으로 수평 이동 후 2개월간 정무수석 없는 정무수석실을 잘 지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이달 초순 정치와 무관한 직업 외교관 출신의 박준우 정무수석이 임명되면서 김 비서관의 비중이 더 커질 것이란 관측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갑작스런 교체는 의외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광주시·전남도와 국비 확보 머리 맞댄다

오늘 예산정책협의회

민주당이 광주시와 전남도를 방문해 2014년도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한다.

30일 오전 10시 광주시청 3층 회의실에서 민주당 원내대표실 주관으로 ‘민주당-광주시 정책협의회’가 열린다.

이날 협의회는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를 비롯한 장병만 정책위의장, 최재현 계열위 간사, 이윤석 원내부대표, 정호준 원내 대변인, 김영록·김광진 계열위원, 임내현 광주시당위원장, 강기정·김동철·박해자·이웅섭 등 국회의원 12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협의회에서 2014년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알리고, 민주당의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또 이날 오후 전남도를 방문, 지역 현안사업 13건의 국비 지원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등 6개 SOC사업과 대규모 양식업 조성 등 농수산 분야 3개 사업, 항공기 비행종합시험 인프라 구축 등 4개 사업의 예산확보에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행복한 부지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 KOREA since 2005

부실채권(NPL) 매각

광산구 우산동 웨딩홀
 대지권 1345㎡ 건 물 2974㎡
 감정가격 78억4천만원
 채권매각 24억원

화순도곡 무인텔
 대 지 3198㎡ 건 물 1107㎡
 감정가격 41억9천만원
 채권매각 23억

회정동 예식장
 대 지 1094㎡ 건 물 4489㎡
 감정가격 41억5천만원
 채권매각 20억원

부실채권 매각은 현재 경매진행중이거나 정치중인 물건을
 유통화 자산매각 전문회사인 에셋코리아를 통해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유용한 제테크 방법입니다.

상담 010-7570-7525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1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87가구)
 분양가격 전유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면적 약150평~42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90%진행중

70% 분양완료!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잔여가 쓸 수 있는 전유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선운지구
 영광 → 어등산골프장 → 어등산 빌리지

부실채권 매각 전문회사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010-2476-0933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 가 함께합니다

상가/건물

- 첨단 월계동 건물 매 27억(보증금 2억8천, 월 1,600만)
- 첨단 월계동 건물 매 36억
- 월산동 6층 건물 매 14억5천 (보증금 2억8천, 월810만)
- 두암동 5층 건물 매 8억5천
- 첨단 구부점포 105㎡ 매 8억6천 (보증금 8천, 월430만)

대지/전답

- 나주 혁신도시 인근토지 7,800㎡(구 2,400평) 3.3㎡당 80만원
- 광산구 신창동 생산녹지 1,980㎡ 매 6억5천 (창고,공장 적합)
- 완도군 약산면 11,000㎡ 매 8억4천 (펜션,귀농지,전원주택용지 적합)
- 장흥군 장평면 13,165㎡ 매 3억5천 (대 660㎡, 신축주택포함)
- 장흥군 용산면 101,851㎡ 매 6억 (연수원,오양병원,관광농원 적합)
- 여수 돌산읍 전 1,874㎡ 매 2억 (바다전망,전원주택,펜션 적합)

기타

- 나주시 문평면 국도 1호선변 주유소 매 7억 (용 4.5억 포함)
- 전남 소재 골프장 1,000억

광주,전남권 매도·매수 상담,접수 환영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5536-0382 Fax 062) 974-0449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영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
 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
 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

공장 매 매

장흥군 장평면
 장평농공단지내

【 토 지 】
 4,864㎡
 【 공 장 】
 375㎡
 【 사무동 】
 161㎡
 기계장치 포함

【 용 도 】
 특수시멘트
 (물탈 등)제조공장

매매가격
3억원

조성중인 장흥농공단
 지 토지분양가 평당
 239천원

017-602-1948